

<http://dx.doi.org/10.17703/JCCT.2017.3.4.27>

JCCT 2017-11-3

죽음의 나쁨에 관한 정당화

A Justification on the Evil of Death

권수현*

Su-Hyeon Kwon*

요약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는 죽음이 산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나쁘지 않음을 피력한다. 이에 반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태도는 죽음을 나쁜 것으로 믿는다. 이 일상의 믿음은 일견 맹목적이며 성찰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생활세계와 생활형식은 이 믿음을 견고하고 받쳐주고 있다. 본 논문은 죽음을 나쁘다고 믿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토마스 네이글의 ‘박탈이론’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옹호한다. 박탈이론의 주장의 요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박탈이론의 주요 주장을 재구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힌다. 즉 우리는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며 동시에 미래를 향한 존재이자 주체적 개인으로서 무한한 삶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죽음은 인류라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사태이지만, 주체적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가능한 삶과 미래를 박탈하는 사태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세계와 생활형식에서 조우하는 죽음은 나쁘다. 인류로서 우리는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지만, 주체적 개인으로서 우리는 이들과 견해를 함께 할 수 없다.

주요어 : 죽음, 삶, 토마스 네이글, 조지 피처, 박탈이론

Abstract Epicurus and Lucretius expressed that death is neither evil to the living nor the dead. On the contrary, our everyday perception of death is that death is evil. Such everyday perception might seem in lack of introspection and blind but our living environment and form of life are strongly supporting this percep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reasonable cause for believing death is evil. In order to justify this argue, this paper critically supports Thomas Nagel's 'Deprivation Theory', which identifies the cause of death being in evil in the deprivation of lif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in substances of 'Deprivation Theory, suggests the related problems and therefore reconstitutes the main arguments of 'Deprivation Theory, resulting in the investigation of the following facts; that we cannot avoid the fate of death, but that our existence is headed towards the future, and that as independent individuals we have infinite possibilities of life. Death is natural to humanity as species, but as independent individuals death deprives us from possible life and future. Therefore, death we encounter in our living environment and form of life is evil. As species, we can agree with Epicurus and Lucretius' view, but as independent individuals we cannot share them.

Key words : Death, life, Thomas Nagel, George Pitcher, Deprivation Theory

*회원, 성신여자대학교 윤리교육과
접수일: 2017년 9월 4일, 수정완료일: 2017년 9월 22일
게재확정일: 2017년 10월 23일

Received: 4 September, 2017 / Revised: 22 September, 2017
Accepted: 23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blitzweg16@sungshin.ac.kr
Dept. of Ethics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I. 서론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는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 한다. 에피쿠로스에게 누군가 살아 있을 동안 그에게 닥칠 죽음을 불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는 아직 죽지 않았고 죽음은 아직 그에게서 아무 것도 빼앗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죽은 후에 죽음이 그에게 불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병 중 가장 끔찍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이 도래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음은 산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전자에게는 그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후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1].”

루크레티우스에게 있어서 죽음으로 인해 박탈당할 선들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좀 더 일찍 태어났으면 누렸을 좋은 것들을 박탈당한 것에 아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늦은 탄생이 우리에게 좋은 무언가를 박탈하기 때문에 늦은 탄생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른 죽음이 우리에게 좋은 무언가를 박탈하기 때문에 죽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기 전의 시간에 대한 미련이 없으며,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영원성의 시간에 지나간 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무 것도 아닌지를 생각해보라. 그러므로 자연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죽은 후 이르게 될 시간의 거울로서 내세운다. 여기에 간담을 서늘하게 해 보이는 어떤 것이, 우울해 보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은 어떤 잠만큼이나 고요하지 않는가?[2]”

이들이 말하는 죽음의 철학은 우리를 진리에 한 걸음 가깝게 다가가도록 만드는 듯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에 머리를 끄덕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설사 불로장생의 꿈을 꾸지는 않더라도, 기꺼이 죽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지상정이다. 경복궁의 구경거리 중 하나는 흥선대원군이 신정왕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지은 자경전 십장생 굴뚝이다. 십장생은 불로장생을 의미하는 열가지 사물로서 장수를 비는 마음을 담은 십장생 그림

이나 문양은 조선시대에 궁전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에피쿠로스나 루크레티우스가 옳다면 십장생이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풍속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해하더라도 어리석은 풍속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십장생에 담긴 의미와 소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에 동감한다. 도대체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려는 노력이나 행위를 왜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까? 죽음을 철학적 삶의 완성으로 보았던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 서서 생각해 본다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너무 맹목적이어서 차라리 불안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죽음을 나쁜 것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일상적 태도를 단순히 어리석은 믿음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러한 태도를 둘러싼 우리의 생활세계(Lebenswelt)와 생활형식(Lebensform)이 너무도 단단하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겐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논문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태도는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토마스 네이글(Thomas Nagel)의 ‘박탈이론’(deprivation theory)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옹호한다. 본 논문은 먼저 박탈이론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점을 살피고 그 다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박탈이론의 주요 주장을 재구성한다.

II. 네이글의 박탈이론

토마스 네이글은 죽음이 나쁘다고 주장한다. 죽음이 나쁜 이유는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죽음이 이 삶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며, 삶을 박탈당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손실이다. 죽음과 함께 우리는 삶으로부터 영원히 이별하는 가장 큰 손실을 경험하고 죽음은 우리에게 삶이 포함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끝났음을 의미하기에 나쁘다.

이와 같은 박탈이론의 논지는 한편으로 죽음이 나쁘다는 사람들의 직관적인 생각을 잘 대변하고 있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첫 인상과 달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단 죽음이 삶을 박탈하기에 나쁘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다가 올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겪으며 그의 박탈당한 삶을 애도하며 괴로워한다. 그런데 문제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나쁜가? 비존재가 어떻게 나쁠 수 있단 말인가?

네이글은 비존재에게 나쁠을 귀속시켜야 하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박탈이론이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세 가지 유형의 의문을 던진다[3]. 첫째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게 분명한 불쾌감을 동반하지 않고서 나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다. 단지 가능할 수 있었던 죽음의 박탈이나 부재로 이루어진 어떤 악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그 박탈에 고통을 받는다는 그러한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악에 대한 의심이다. 둘째는 죽음이 발생했을 때 그 불행을 누구에게 특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누가 불행의 주체이고 또 불행을 겪는 때는 언제인지에 관한 의문이다. 죽음의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운한 주체에게 속하는 죽음이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죽음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게 된 시간과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탄생 이전의 비존재가 나쁘지 않다면 어떻게 죽음 이후의 비존재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다.

위의 의문들에 대한 답변의 열쇠는 ‘시간’이다. 네이글은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불운의 주체와 불운을 구성하는 환경 사이의 시간 관계에 대한 잘못된 가정”이 놓여있기 때문이며, 문제로서 “한 사람에게 닥치는 선과 악을 특정시간에 그에게 귀속할 수 있는 비관계적 속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주장한다[3].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문과 관련하여 선과 악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사건발생을 통하여 당사자가 바로 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 단순한 종류의 해악도 있지만, 그 해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야 그 사실이 밝혀지는 그런 종류도 있다. 심지어 해악을 입은 당사자나 주변인이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해악도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해악을 당하는 것이 나쁜 이유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가 불행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 대신에 해악을 당한 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불행해지는 것이다. 죽음은 발생 자체가 당사자에게 해를

입히는 사건이지, 자신의 죽음을 안다는 사실이 비로소 당사자에게 해를 입히는 사건은 아니다.

둘째 의문과 관련해서 네이글은 뇌수술의 결과로 유아 정도의 지적상태로 떨어진 사람을 예로 든다[3]. 그는 현재 석 달된 아이와 같은 상태로 그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든든한 위와 보송한 기저귀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불운이다. 그런데 현재 그의 위는 채워졌고 기저귀는 보송보송하여 그는 매우 만족한 상태이다. 그는 행복하고 이제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한탄해야 할 지적으로 성숙한 어른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불운에 빠진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은 사라진 지난날의 그인가 아니면 현재의 그인가? 네이글은 “과거의 그를 고려하고, 가능할 수 있었던 현재의 그를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성인으로서의 발달이 멈춘 그의 상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참사를 구성”한다고 말하며, “한 사람의 삶은 그의 심신의 현재적 경계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고”, “그에게 발생하는 것은 그의 삶의 경계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 이로써 우리가 네이글의 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란 현재 일어난 사건과 그 결과로만 한정해서 규정될 수 없는 존재이고 또 그렇게 규정해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한 사람은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을 현재의 삶에서 위치지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를 현재적 심신의 경계 안에 가두어서 특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인이면서도 유아상태에 놓여있는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만이 다가 아니다. 그에게는 현재의 쾌락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과 관계가 있으며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존재는 현재 생리적으로 만족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박탈당한 삶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이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는 존재이다. 설사 그가 뇌수술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것은 셋째 의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삶의 여러 가능성을 지닌 존재는 죽음으로 인하여 그 가능성을 박탈당하므로 해를 입게 되지만, 이와 달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한 적도 없고 삶의 가능성을 가진 적도 없어 아예 존재의 흔적조차 없다. 그러므로 탄생 전의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사람과 달리 어떤 것도 박탈당할 수 없다. 다른

시간의 방향이 다른 사태를 만든 것이다.

III. 박탈이론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인간 삶에는 일상적으로 욕망이 따르며, 욕망은 우연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인간 삶의 구성적 요소라고도 할만하다. '욕망'이란 쾌락의 추구를 부르고, 쾌락의 추구는 만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삶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쩌면 욕망이 없는 인생은 권태, 무료함 그리고 지루함 따위로 점철될지도 모른다. 욕망 없는 삶은 행복 없는 삶과 같아서 욕망은 행복의 전제 조건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욕망은 불행과 불운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죽음이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다. 만약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그럴 것이다. 죽음은 삶을 박탈하고 그 삶에 따르는 선 또한 박탈한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성립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도 성립함을 인정해야만 한다. 즉 죽음은 삶을 박탈하고 삶에 따르는 고통도 함께 박탈한다. 고통이 없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며, 따라서 죽음은 나쁘지 않은 일이 된다. 그러나 죽음을 둘러싼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죽지 않는다면 삶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러한 삶에 고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마찬가지로 삶에 선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보장도 없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으로 인한 손실은 실제의 손실이라기보다 추정된 손실이며, 시공간을 특정할 수 있는 주체로부터 무언가를 박탈하는 손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견해는 죽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런 가치와도 연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게끔 한다.

우리가 석연치 않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는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가 주장했던 살아있는 한 죽음이라는 사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죽음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한다. 이들에 따르면 불운한 주체에게 속하는 죽음은 존재한 적이 없다. 이런 죽음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죽음이 삶을 박탈한다는 생각은 실체가 있는 박탈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에 의한 박탈감과 관계하는 것일 수 있다. 게다가

누군가 죽음으로 인해 삶을 박탈당했다는 생각이란 죽은 당사자와는 관계없는 주변인의 생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죽은 당사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으니 그 죽음을 바라보는 타인이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럴 것이다'라고 공감적 상상을 더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죽음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박탈당한 당사자가 있기는 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죽음을 박탈로 바라보는 견해는 일종의 범주의 오류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말하자면 죽음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여 죽음에 저항하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있는 상태나 그 상태에서 느낄 박탈감을 상상하며 오류를 범하는데, 그것은 상상을 상상이라 여기지 않고 미래에 다가올 사태로 간주하는 것이다.

네이글의 박탈이론은 죽음이 나쁜 이유가 삶의 부재에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죽음이 나쁜 이유가 죽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악을 하나의 실체로 보기보다 다만 선의 부재로 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와 유사한 것으로, 악이 실체가 아니듯이 죽음 또한 실체가 아닌 것이 된다.[4] 죽음은 삶이라는 선의 부재로서만 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다. 죽음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삶과 관련해서만 그 의미 내용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죽음 자체가 가져오는 새롭고 낯선 무엇인가에 있지 않고, 죽음이 곧 삶의 소멸에 대한 표식이기 때문이다. 즉 죽음은 스스로 존재하는 적극적 실체가 아니라 삶의 부재로서 비로소 드러나는 사태이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네이글이 에피쿠로스와 함께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이윤배반적이게도 죽음을 부정할 이유가 마땅히 없다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죽음에 저항하거나 강하게 부정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죽음에 대한 저항이 없다는 것이 곧 죽음에 대한 결심을 젊은 나이에 너무 빨리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죽음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적절한 죽음과 적절하지 않은 죽음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IV. 박탈이론의 옹호

죽음에 대한 조지 피처(George Pitcher)의 견해는 네이글의 박탈이론을 개념적 분석을 통하여 강화시킨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해를 입을 수 있으며 부당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누군가가 죽고 나면 그 죽은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주변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간다. 하나는 '죽음 이후에 사후 사람'(a post-mortem person)과 다른 하나는 '죽음 이후에 생전 사람'(an ante-mortem person)이다 [5]. 먼저 죽음 이후에 사후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언급한 것에 따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 자연으로 돌아가 한 줌의 흙이 되거나 아니면 신들의 세계로 가 버린다. 이 두 가지 존재양식 모두 속세의 현실에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먼저로 변한 육신은 이미 자연이 되어버려 더 이상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신들의 세계로 떠난 존재나 그에 대한 물음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세계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생전 사람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계실 때 잘 해 드리지 못한 데 대해 가슴 아파하고 후회한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회한은 형체도 없이 먼저가 되어버린 육신을 향한 것도 아니고 저 세상으로 가버린 영혼을 향한 것도 아니다. 방향은 죽음이후에 사후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생전 사람인 부모님에 대해서이다. 따라서 피처가 죽음으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죽음 이후의 사후의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생전 사람이다.

죽음이 적극적 실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박탈이론은 죽음을 부정하고 나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삶은 계산의 영역이 아니며 실사 계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영역에 속한다. 삶으로부터 삶의 질을 높이는 선한 요소만큼 그와 똑같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나쁜 요소들을 추가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삶은 아니다. 삶에서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 모두를 없애 버린다고 해도 그 삶이 중립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삶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삶에 나쁜 것이 가득 차 있고 좋은 것이 빈약하다 할지라도,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삶의 긍정적

가치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어떤 특정한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 그 자체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삶을 끝내는 죽음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드러난다.

네이글이 확실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의도했던 진실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로서 삶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만일 삶을 둘러싼 주체적 경험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러한 삶은 삶으로서의 가치를 잃으며 죽음과 다를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네이글은 '코마' 상태와 '동결'의 상태의 차이를 예시로 드는데 이를 통해 위와 같은 견해를 잘 설명할 수 있다[3]. 코마와 동결에 대한 우리의 가치판단은 확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아니면 코마에 빠져 20년간을 식물인간으로 지내다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코마상태를 죽음보다 더 선호할 이유는 없다. 이 두 경우 모두 우리에게 결코 의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히 잠드는 죽음과 깨어나지 못하는 코마상태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엔 동면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어 치료될 가망성이 없으며 유일한 방도는 300년간 동결되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의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음을 경험하며, 세상은 우리에게 매우 낮은 곳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매우 급격한 불연속성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단점을 상쇄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비록 불연속적이기는 하나 연속적인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300년 후에도 여전히 삶을 주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의학수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단명하기보다는, 300년의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후에 삶으로 이어질 동결상태보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단지 숨만 쉴 수 있게 해주며 중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날 코마상태를 더 선호할 사람은 드물다.

이로써 확실해지는 것은 우리가 좋다고 간주하는 것

은 살아있는 것이며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고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죽음에 저항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죽음이 나쁜 이유는 주체적 경험의 장인 삶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삶의 박탈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와 달리 우리는 잠정적인 비존재를 그것이 아무리 장기간을 요한다고 해도 죽음과 같이 그 자체로 나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의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탄생 전의 시간은 우리가 주체로서 존재하기 이전의 시간으로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릴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박탈이론의 주장이 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박탈이론에 토대해야만 우리는 죽음의 나쁨을 가장 설득력있게 정당화할 수 있다[6]. 에피쿠로스와 함께 죽음이라는 사건에 불운의 주체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현재만을 살아가는 존재일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존재이다. 특히 우리는 과거를 신경 쓰기보다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으로 특화된 존재이다[7]. 우리가 미래를 예견하고 그에 맞추어 행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회적 질서와 역사적 제도 속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르트르의 말을 빌리자면, 주체로서 미래를 향해 자유롭게 자신을 기투하면서 즉 실존하면서 각자의 본질을 만들어간다. 이와 달리 동물은 현재만을 살아간다. 다람쥐가 겨울을 나기 위해 도토리를 묻는 행위는 우리가 추운 겨울을 예상하고 땀감을 구하는 등 겨울을 나기위한 준비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묻는 행위는 일조량의 변화에 따른 조건반사적 행동에 속한다[8]. 현재에 살면서도 그 현재에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인간에게 불운의 주체와 불운을 구성하는 환경 사이의 시간관계가 언제나 동시시간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현재에 한정된 일에만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벌어질 일을 예상함으로써 현재에 고통 받을 수 있다. 쾌락이나 행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서는 불운의 주체가 그 사실을 꼭 알아야만 할 필요도 없다. 부모님을 잃은 어린 아이를 불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불행을 모를 경우에 그 아이에 대한 우리의 연민은 더 깊어진다.

사람들은 탄생이전의 시간과 죽음 이후 시간 사이에 암묵적인 시간의 비대칭을 가정하고, 루크레티우스는 비대칭 논제의 어리석음을 말한다. 시간의 물리적 차원에서는 옳은 지적이며, 탄생 이전의 시간과 죽음 이후의 시간은 둘 다 비존재의 시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더 일찍 태어난다는 것은 삶의 연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그 출발점만을 앞당기는 것도 맞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우리에게 탄생 이전의 시간은 없지만 죽음 이후의 시간은 있다는 것이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을 박탈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을 잃는다는 것과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즉 박탈로부터 해를 입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와 달리 탄생 이전의 시간은 손실의 주체가 없다. 그가 더 일찍 태어날 수는 없다. 만약에 먼저 태어났더라면 그는 지금의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은 삶을 빼앗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탄생은 그에게서 아무런 삶의 손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시간의 방향이 다르다.

확정할 수 있는 개인이 있다면, 그의 연속된 존재의 셀 수 없는 가능성과 그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그에게 무엇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이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탄생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의 일상 언어의 용법에 깊이 뿌리박혀있으며, “아무개가 살았다면 오늘 얼마나 기뻐했을까!”와 같은 언명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가정적 용법은 죽음 이후에만 해당되고 탄생 이전의 삶에는 쓰지 않는 용법이다[9].

V. 결론

우리는 죽을 운명에 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바람은 삶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아닌 그 자체로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언제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죽음은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바람을 저버리게 나쁜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젊은 우리에게도 노년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쁘다. 인류로서 우리는 죽음

과 탄생만이 인류의 존재가 지속가능한 방식임이 자명하기에, 죽을 운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우리는 죽을 운명과 화해할 수 없다. 삶이 많은 선을 제공하기에 죽음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선한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아니든 상관없이 삶 자체가 의미를 지니기에 죽음이 언제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죽음은 우리로부터 지속적인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다. 우리는 자연적인 생애기간을 갖는 죽을 운명의 존재이나, 우리는 주체로서 고유한 경험의 세계에서 이러한 자연적 제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다 [10].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순응해야 함을 확신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있는 삶의 가능성과 선들을 무효화시키는 죽음의 폭력으로부터 달아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의 기묘한 특징이다. 종으로서 우리는 물리적 세계를 살아가지만, 개인으로서 우리는 생활세계와 생활형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물리적 세계의 죽음은 삶의 순환이지만 생활세계와 생활형식에서 죽음은 삶의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박탈이다[11]. 그래서 우리는 죽을 운명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러한 운명은 주체적 개인에게는 언제나 낯설게 다가온다. 따라서 인류라는 종으로서 우리는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지만, 주체적 개인으로서 우리는 이들과 견해에 따를 수 없다.

References

- [1] Epikur, Philosophie der Freude. Briefe. Hauptlehrsätze. Spruchsammlung. Fragmente, Translated P. M. Laskowsky, Insel Verlag, Frankfurt am Main, pp. 55, 1988.
- [2] Lucretius, On the Nature of Things, Translated M. F. Smith,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dianapolis, pp. 94, 2001.
- [3] Thomas Nagel, "Death," in The Metaphysics of Death, Edited J. M. Fischer,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pp. 61-69, 1993.
- [4] T. C. Calder, "Is the Privation Theory of Evil Dead?"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44, pp. 371-381, 2007.
- [5] George Pitcher, "The Misfortunes of the Dead, in The Metaphysics of Death," Edited J. M. Fischer,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pp. 159-168, 1993.
- [6] Shelly Kagan, Death, Yale University Press, p. 333, 2012.
- [7] Fred Feldman, "Some Puzzles About the Evil of Death," in Life, death, & meaning, Edited D. Benatar, P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lymouth, pp. 223-242, 2010.
- [8] D. Gilbert, Stumbling on Happiness, Harper Perennial, London, p. 4. 2007.
- [9] E. Tugendhat, "Über den Tod oder: Warum fürchten wir, bald zu sterben?" in Handbuch Sterben und Menschen Würde, Band 1, Edited M. Anderheiden, and W. U. Eckart, De Gruyter, Berlin, pp.31-50, 2012.
- [10] S. Scheffler, Death and the Afterlif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p. 97-99, 2013.
- [11] M. Gutmann, Sterben als Verlassen einer Lebensform?, in Welchen Tod stirbt der Mensch?, Edited A. M. Esser, D. Kersting, and Ch. G. W. Schäfer, Campus, Frankfurt am Main, pp. 71-88, 2012.
- [12] P. Gehring, Theorien des Todes, Junius, Dresden, 2010.

※ 이 논문은 201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
조성비(2016-1-11-092) 지원에 의해 연
구되었음.